

다니엘서 - 제143번

예언적 패턴 공개: 마지막 대통령과 짐승의 우상

Jeff Pippenger

2024-03-18

성경 예언에서 첫 번째 왕국은 바벨론이었으며, 바벨론에 관한 예언에서 처음과 마지막 왕은 예언적 상징으로 구체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왕국인 메대와 바사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한 세 차례의 칙령 가운데 첫째를 반포한 왕을 포함한 처음 두 왕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칙령을 반포한 그 다음의 두 왕이 구체적으로 지목되었다.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왕과, 셋째 왕국인 그리스의 역사에서 그 뒤를 이은 장군들과 왕들도 예언의 말씀 속에서 지목되었다. 넷째 왕국인 이교 로마에 대해서도 그 왕국의 통치자들과 황제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북왕국과 남왕국을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지목되었고, 앗수르의 왕들과 애굽의 바로들이 그러하듯,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서 상징들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미합중국의 대통령들을 지목하여 말씀하신다는 생각은, 눈은 있으되 분별하지 못하고 귀는 있으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말세에 관한 예언들의 주된 참조점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일 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대통령들을 언급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부조리하다.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은 예언적 필연성상 미국의 첫 대통령에 의해 예표되어야 한다. 공화당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그는 예언적 필연성상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예표되어야 한다. 최종 개혁 운동의 역사에서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그는 또한 그 예언적 시기의 첫 대통령에 의해 예표되어 왔다. 마지막이자 제3차 세계대전 동안 집권하게 될 대통령으로서, 그는 또한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집권했던 대통령들에 의해서도 예표되었을 것이다.

미국 역사 속에서 모두 일어난 세 차례의 세계대전은 예언의 삼중적 적용을 표상한다. 지금 조 바이든이 지구를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예표되어 왔다. 바로 그와 동시에 바이든은 미국을 제2의 내전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향후 수개월 동안 제2의 내전과 제3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예언적 동향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처럼 더욱 격화될 따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 독일의 신학자이자 루터교 목사인 마르틴 니뮐러가 남긴 유명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말하지 않았다—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말하지 않았다—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말하지 않았다—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나를 위해 말해 줄 이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시간이 계속 흘러감에 따라, 우리는 이 현재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참으로 예언적 역사의 최후의 전쟁들에 이르는 시발 단계였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독립선언, 헌법, 그리고 외국인법과 선동법이 이정표가 되었던 1776년부터 1798년까지로 표상되는 예언의 기간은, 2001년 9월 11일부터 미국이 용처럼 말하게 되는 때까지의 역사를 나타낸다. 2001년 9월 11일은 전환점이었고, 독립선언은 그 날짜와 상응한다. 독립선언은 또한 독립전쟁을 표시하며, 2001년의 애국자법이 그 전쟁의 영적 반복을 시작함을 지적한다. "revolution"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한 바퀴를 돈다는 뜻이다.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 동안, 독립전쟁은 영국의 왕권과, 더 일반적으로 모든 왕을 거부했다. 헌법은 왕권에만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못지않게 단호하게 교황권에도 제한을 두었다. 1798년이 되자 대통령에게 왕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순환(혁명)은 완결되었다.

애국법은 용처럼 말하는 땅의 짐승에게까지 이르는 혁명(바퀴)을 가리키며, 그곳에서 교황권도 회복된다.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첫 번째 바퀴는 왕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예언적 혁명을 가리키며, 그 혁명이 예표하는 바는 교황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혁명이다. 제2의 혁명 전쟁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것을 애국법이라고 부르겠는가?

마지막 대통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짐승의 형상의 예언적 특성들을 계속해서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 대통령의 시기에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을 둘러싼 환경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대통령은 용의 권세와 연합된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공화당 대통령이어야 한다. 그는 마지막이어야 하며, 그러므로 여덟 명의 대통령으로 이루어진 한 시기 가운데 여덟째 대통령이어야 한다. 미합중국의 시초적 두 시기, 곧 두 차례의 대륙회의에서, 각 기간은 여덟 명의 대통령으로 대표되었고, 또한 각 기간에서 그 여덟 명 가운데 한 대통령이 '일곱 중에 속한 자'로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처음의 두 증인에 의거하여, 마지막 대통령은 여덟째 대통령이어야 하며, 곧 일곱 중에 속한 자여야 한다.

오직 도널드 트럼프만이 이러한 예언적 요소들을 성취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곧 물려받게 될 예언적 환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예언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 안에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이 대표되어 있으며, 그 전쟁들의 예언적 특성 또한 트럼프가 물려받을 환경을 가리킨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세 차례 세계대전에 대한 삼중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슬람으로 말미암아 격화되는 전쟁과 그에 뒤따르는 재정적 문제들은, 미합중국에서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셋째 화'의 이슬람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성취하는 수단이다. 이슬람의 거짓 선지자인 '나귀'는, 나귀가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 실어 나른 것처럼, 미합중국의 거짓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실어 나른다. 그 여정 가운데 과거의 예언들이 성취를 받게 하는 예언적 환경이 조성된다. 1798년에, 어린양처럼 시작하여 마침내 용처럼 말하게 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역사가 막 시작되던 때에, '외국인 및 선동죄법(Alien and Sedition Acts)'이 '선포되었다'. '외국인 및 선동죄법'은 네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었다.

귀화법: 이 법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을 연장했다.

외국인 우호법: 이 법은 평시에 "미합중국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시민을 추방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또한 정부가 적법절차 없이 외국인을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적국인법: 이 법은 전시에는 대통령에게 적대국의 모든 남성 시민을 구금하고 추방할 권한을 부여했다.

선동법: 네 가지 중 가장 논란이 컸던 선동법은 미국 정부 또는 그 공직자를 겨냥한 허위·비방적·악의적인 글을 출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 비판을 범죄화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캠페인은 그가 이전 대통령 임기에서 시작한 "장벽 건설"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에 주로 기반하고 있다. 그는 2024년에 자신이 당선되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 정치 무대의 다른 어떤 정치인과도 다른 개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선거 공약을 지키거나,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한다. 외국인 및 선동법은 그의 추방 공약과 완벽하게 부합한다.

트럼프가 부패하고 비도덕적이며 약점 잡힌 정치인들, 직업 관료들, 알파벳 기관들, 억만장자 금융가들로 이루어진 워싱턴 DC의 뿌리 깊은 정치 기득권을 '늪'이라고 규정하며 제기한 가장 큰 비난 중 하나는, 오늘날 MSM, 즉 주류 언론이라 불리는, 히틀러의 국민계몽선전부의 현대적 구현이 만들어 내는 '가짜 뉴스'라는 것이다. '외국인 및 선동법'은 그의 '가짜 뉴스'에 대한 혐오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법률들이다. 예수는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준다.

첫 공화당 대통령인 링컨은 민주당 소속 전임자 부캐년이 초래한 남북전쟁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링컨은 인신보호청구권을 정지시켰다. 인신보호영장은 개인이 법원에서 자신의 구금 또는 수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원칙이다. 이는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사람을 구금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기본적인 법적 권리이다. 피구금자를 대신해 인신보호영장이 청구되면, 정부는 법원에서 그 구금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 남북전쟁 동안 링컨은 전시 조치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인신보호영장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는 1861년 4월 메릴랜드에서 처음으로 인신보호영장 효력 정지를 시행했고, 이후 그 조치를 중서부의 일부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연방 탈퇴나 남부연합에 대한 동조(민주당)가 강한 지역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반대를 억누르며, 연방의 전쟁 수행에 대한 방해로 막기 위해 취해진 것이었다.

링컨의 인신보호영장 정지 조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근본적인 시민적 자유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제기했다. 헌법은 '반란이나 침공의 경우 공공의 안전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인신보호영장의 정지를 허용한다(제1조 제9절).

링컨은 전쟁 시기에 연방의 보존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자신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옹호했다. 의회는 1863년에 인신보호령 정지법을 통과시켜 링컨의 인신보호령 정지를

소급 승인하고 군사적 구금에 관한 일정한 절차를 마련했다. 남북전쟁 이후 수년 동안 분쟁이 종식됨에 따라 인신보호령은 점차 복원되었고, 나라는 평화 상태로 돌아갔다.

1871년, 윌리엄 S. 그랜트 대통령(공화당원)은 재건기 동안 쿠 클럭스 클랜(민주당원들)의 공포 통치 시기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홉 개 카운티에서 인신보호영장을 정지하기도 했다. 이 정지 조치는 폭력을 저지하고 새로 해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민주당 소속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 서부 해안에 거주하던 일본계 미국인들의 강제 이주와 수용을 허가하는 행정명령 9066호에 서명했다. 이는 엄밀히 말해 인신보호제도를 정지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계 미국인들이 적법절차 없이 구금되는 사태를 초래했고 그들의 법적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그런 다음 2001년, 마지막 부시(글로벌리스트 성향의 공화당원)는 9·11 테러 공격 이후 관타나모만과 다른 시설에서 적성 전투원으로 의심되는 자들의 구금을 승인했다. 이들의 구금과 법적 지위는 인신보호영장과 관련된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다음 2021년에, 펠로시(민주당원)의 1월 6일 재판들은 인신보호제의 정지, 적법절차의 박탈, 위헌적인 강제수용의 시행이라는 발상을 이어갔다. 2021년 펠로시 재판은 미국 시민의 법적 권리가 순전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처음으로 제쳐진 사례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특정한 적 대상을 지목한 실제 전쟁이나 반란이 있었다. 펠로시 재판에서 규정된 적은 단지 용에게 영감을 받은 글로벌리스트들의 적일 뿐이었다. 헌법을 뒤엎는 문제들과 관련된 예언적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들이야말로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고 있음을 식별하게 해 주는 표지들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큰 시험이기 때문이다.

펠로시가 당신의 영웅이든, 트럼프가 당신의 옹호자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위기를 인식하고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위기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하늘 예루살렘의 시민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에서 배도한 모든 권세가 곧 하나로 연합하여, 짐승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 사두개인(민주당)과 바리새인(공화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미국 내 이슬람의 거짓 선지자이든 세계의 배도한 개신교이든, 그들의 기만적 활동이 정교일치를 초래한다. 화이트 자매는 또 다른 내전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국제 은행가들과 억만장자들에 의해 야기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현대 바빌론의 상인들이며, 예언적으로 용의 권세를 대표하는 세력의 절반을 이룬다. 나머지 절반은 직업 정치인, 변호사, 왕들과 통치자들이다.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도시들에서 수천 명의 남녀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재력가들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통제한다. 그들은 구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헐값에 사들인 뒤, 크게 올린 가격으로 판다. 이는 가난한 계층의 굶주림을 뜻하며, 결국 내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제5권, 305쪽.

미국 독립전쟁은 실제의 전쟁이었으나, 2001년 9월 11일에 개시된 정치적 전쟁을 상징하였다. 미국은 지금 두 정당으로 갈라진 국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의 말씀은 트럼프가 2024년 선거에서 재선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이미 개시된 내전은,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인 링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당선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가 물려받게 될 내전의 근저에 있는 논리는 국제 금융가들과 억만장자 상인들에 의해 조성될 것인데, 이들은 그 밖의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전 세계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대규모 이민을 개방하기 위하여 쉽 없이 일해 왔으며, 이는 더 많은 금융 수익에 대한 그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더 중요하게는 중산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벨론의 상인들은 초부유층과 초빈곤층으로 이루어진 이원적 계급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짐승의 형상 세움을 주재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며, 그 형상을 세우도록 강제하는 자는 이슬람의 거짓 선지자일 것이며, 볼 눈이 있어 분별하고 들을 귀가 있어 깨달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셋째 화의 이슬람이 고대의 영화로운 땅인 문자적 이스라엘을 상대로 2023년 10월 7일에 감행한 공격이 이슬람의 거짓 선지자의 섭리적 사역의 명백한 성취로 드러난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다양성, 형평성, 포용'의 정당으로 내세우며, 이제 그들이 조장해 온 사탄적 철학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반이스라엘과 친이스라엘 진영 간의 논쟁이 2024년 선거를 앞둔 그들의 당의 정치적 힘을 균열시키고 있다. 이 분열은 그들의 지지자들 사이에 내분을 낳았고, 그 결과 그들의 부패한 전자투표기가 트럼프에게 실제로 투표될 표를 넘어설 만큼 충분한 표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을지도 모를 정도에 이르렀다. 이슬람의 거짓 예언자의 전쟁은 1989년 종말의 때 이후, 땅의 짐승이 바다의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 트럼프를 일곱에 속한 여덟 번째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이라는 사탄적인 철학은 LGBTQ+ 의제를 밀어붙이며 소돔과 고모라의 반역을 재현하기 위한 플랫폼 가운데 하나다.

룻의 때에도 그러하였나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 그들 모두를 멸하였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28-30.

LGBTQ+ 의제는 게이 프라이드로도 표현되며, 따라서 땅의 짐승의 최종적인 도덕적 몰락과 그 이후 세계의 몰락을 알린다.

정직한 자의 대로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자신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보전한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선다. 교만한 자들과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낮은 자들과 함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낫다. 잠언 16:17-19.

교만은 넘어짐에 앞서고 교만은 멸망에 앞선다. 국가적 배교는 국가적 파멸을 초래하며, 세계주의적 교만의 상징은 소돔과 고모라의 반역의 상징이다. 영감은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일 법령을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성읍들이 멸망할 때 룻이 간신히 벗어난 사건과 연결시킨다. 이는 룻의 후손들(암몬과 모압)이 일요일 법령 때 교황권의 손에서 벗어나는 자들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들이 넘어질 것이나, 오직 이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니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들이라. 다니엘

11:41.

민주당은 지금 자기 손으로 무너지고 있다.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단지 현재의 역사를 예언적 서사와 맞춰 볼 뿐이다. 민주당은 전 세계의 국경을 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전례 없고 통제되지 않은 사람들의 유입을 허용했다. 용에게 영감을 받은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 지구 전역에서 수문이 열렸다.

뱀이 여자를 뒤쫓아 자기 입에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자기 입에서 토해 낸 그 강물을 삼켜 버렸다. 이에 용은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러 갔다. 요한계시록 12:15-17.

“남은 자”는 14만 4천이며, 14만 4천의 역사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역사다. 그때부터 용의 권세는 사방으로 “그의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토해 내고” 있다. 물은 사람들을 상징한다.

또 그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들과 방언들이니라. 요한계시록 17:15.

용의 권세의 지상 대리자들(글로벌리스트들)이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시기에 불법 이민의 수문을 연다. 세계 곳곳의 용의 ‘홍수’는 가까이 임할 일요일 법령의 때에 주께서 기치를 들어 올리시려 함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용의 홍수는 미합중국의 창건 초기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삼켜졌으나, 이제 그 용의 홍수가 다시 돌아왔으므로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의 위기에 대한 경고가 된다. 이는 대적이 홍수같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치를 드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범죄하며 그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우리 하나님에게서 떠나, 압제와 반역을 말하며, 마음에 거짓된 말을 꾸며 내어 토한다. 그리하여 정의는 뒤로 물러나고, 공평은 멀리서 있다. 진리가 거리에 쓰러지고, 정직이 들어오지 못한다. 참으로 진리는 사라지고, 악에서 떠나는 자는 스스로 노략거리가 된다. 여호와께서 이를 보시고, 정의가 없음이 그를 불쾌하게 하셨다. 그가 보시니 사람이 없고, 중보하는 자도 없음에 놀라셨다. 그러므로 그의 팔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었고, 그의 의가 그를 붙들었다. 그는 의를 흥감으로 삼아 입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으며, 보복의 옷을 입으시고, 열심을 겹옷처럼 두르셨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니, 그의 대적들에게는 분노를, 그의 원수들에게는 보응을; 섬들에게도 보응하시리라. 그리하여 서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돋는 곳에서는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기치를 들어 올리시리라. 구속자가 시온에 이르며, 야곱 가운데 죄과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는 나의 언약이니라.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가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네 입에서, 네 자손의 입에서, 네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13-21.

원수가 홍수같이 밀려올 때 들어 올려지는 기치는 곧 군기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또한 표준이다.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 앞선 때에, 불법 이민의 홍수는 은혜의 문이 닫히려 함을 알리는 표징이다. 이사야가 기치를 들어 올림에 대하여 말할 때 그가

지목하는 환경은 무법의 시기를 묘사한다. 그는 이같이 말한다: “공의는 뒤로 물러가고, 정의는 멀리 서 있으며, 진리는 거리에 엎드러졌고, 공평은 들어오지 못하다. 정녕 진리가 없어졌고, 악에서 떠나는 자는 노락물이 되며, 여호와께서 이를 보시고 공의가 없음을 불쾌히 여기셨다. 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조지 소로스와 같은 자들이 자금으로 후원해 온,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묵과해 온 무정부 상태는, 이사야의 그 구절과 관련하여 화잇 자매에 의해 적절히 묘사되어 있다.

사법부는 부패했다. 통치자들은 이익 추구하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사랑에 이끌린다. 절제하지 못함이 많은 이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 사탄이 그들을 거의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법률가들은 타락하고, 매수되며, 현혹되어 있다. 술취함과 방탕한 흥청거림, 정욕, 시기, 온갖 형태의 부정직함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 가운데 드러난다. ‘정의는 멀리 서 있고, 진리는 거리에 쓰러졌으며, 공평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사야 59:14. 대쟁투, 586.

불법 이민, 안티파(반파시스트)와 같은 무정부주의 운동,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같은 폭력적 운동은 비판적 인종 이론과 같은 왜곡된 역사 서사에 기반한 것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용의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조장되어 왔으며, 타락한 법원과 법관들은 진리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살해된 바로 그 거리로 내던졌다. 그 거리는 무신론(이집트)과 부도덕(소돔)의 도시, 곧 용과 그의 대리자들의 도시에 있었다. 민주당의 열매로 드러나는 환경은 예언적으로 홍수로 묘사되며,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그의 수문을 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깃발이 곧 들어 올려질 증거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세계의 사정은 혼란의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닥쳤음을 보여 준다. 일간지들은 가까운 장래에 무서운 충돌이 있을 조짐들로 가득하다. 대담한 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파업은 흔하며, 도둑질과 살인이 도처에서 저질러진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악행에 현혹되어 온갖 종류의 악이 횡행한다. 원수는 정의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기적 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채우는 데 성공했다. ‘정의는 멀리 서 있고, 진리는 거리에 쓰러졌으니, 공정함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사야 59:14. 큰 도시들에는 가난과 비참 속에 사는 무리가 많아, 먹을 것과 거처와 입을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한편 같은 도시들에는 마음이 바라는 것 이상을 가진 이들이 있어, 사치스럽게 살며 돈을 사치스럽게 꾸민 집과 개인적 치장에 쓰고, 더 나쁜 것은 감각적 욕망의 충족, 술과 담배, 그리고 뇌의 능력을 파괴하고 정신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영혼을 타락시키는 다른 것들에 쏟아붓는다. 굶주린 인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온갖 형태의 압제와 착취로 거대한 재산을 쌓아 올리고 있다.

나는 밤에 하늘을 향해 층층이 솟아오르는 건물들을 보게 되었다. 이 건물들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보증되었고, 소유주와 건축자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세워졌다. 이 건물들은 더 높고, 또 더 높고 솟아올랐으며, 그 안에는 가장 값비싼 자재가 사용되었다. 이 건물들의 소유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장 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고 자신들에게 묻지 않았다. 주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다.

이러한 우뚝 솟은 건물들이 세워져 갈수록, 소유주들은 자신을 만족시키고 이웃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쓸 돈이 있다는 사실에 야심에 찬 자만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이 이렇게 투자한 돈의 상당 부분은 가혹한 수탈과 가난한 이들을 짓눌러 착취함으로써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하늘에서는 모든 사업 거래가 기록되며, 모든 불의한 거래와 모든 사기 행위가 거기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잊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사기와 오만 속에서 주께서 더 이상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에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화재 경보였다. 사람들은 우뚝 솟아 있고 불에 타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들은 완전히 안전하다.' 그러나 그 건물들은 마치 역청으로 만든 것처럼 타 버렸다. 소방차들은 그 파괴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방관들은 소방차를 작동시킬 수 없었다." 증언, 제9권, 12, 13.